

열왕기상 3. ‘솔로몬’의 일천 번제 (왕상 3:1-28)

들어가기

열왕기상 3 장은 지난 시간 ‘다윗’이 죽은 후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수 있는 정적들을 다 제거하며 이스라엘을 내부적으로 견고하게 세운 ‘솔로몬’이 애굽의 왕 ‘바로’의 딸과 결혼을 함으로써 대외적으로도 이스라엘을 안정시킨 일과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린 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‘솔로몬’의 기도,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갓난아이의 생모를 판별해 준 재판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.

1. ‘솔로몬’은 애굽의 왕 ‘바로’와 국혼관계를 맺고 그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. (1 절)

- 1) ‘솔로몬’은 왜 애굽 왕 ‘바로’의 딸과 결혼을 하였을까?
 - 이는 분명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한 정략 결혼이었음!
 - 곧 ‘솔로몬’의 결혼은 이스라엘과 애굽이 서로 국교를 맺었다는 것을 의미!
 - 이로써 ‘솔로몬’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안정적인 국가운영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!

➤ **참고: 역사학자들**

- > 애굽의 왕들이 외국인에게 자신들의 딸을 내어 주어 결혼을 시키는 일은 극히 드문 일!
- > 그런데 ‘솔로몬’에게 딸을 주며 국교를 맺었다는 것은 그만큼 당시 이스라엘의 국력이 근동지역에서 강해졌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것!!
- > 이는 결국 하나님께서 ‘솔로몬’ 왕국을 미리 예언하신 것처럼 강하게 성장하도록 축복하셨음을 깨닫게 하는 것!!

2. 이후 ‘솔로몬’은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며 은혜를 구했습니다. (2-15 절)

- **참고: ‘기브온’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10km 떨어진 넓은 언덕이었음.**
 - 특별히 이곳엔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와 회막(성막)이 있었음! (역대하 1:3)
 - 또한 그 안에는 ‘홀’의 손자 ‘우리’의 아들 ‘브살렐’이 지은 놋 제단이 있었음!! (역대하 1:3)
 - 당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건축되기 전이라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 율법과 전통에 따라서 이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와 제사를 드렸음.

1) 그런데 ‘솔로몬’도 이 기브온 산당을 찾아와 일천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!

- 특별히 3 절을 다시 주목!
 ‘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,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’
- 이에 대한 학자들의 두 가지 대치되는 견해
 - ①. 부정적 : ‘~행했으나 그러나! 또한~’ -> 히브리 원어 (라크: only, except)
 ->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방법은 오직 성막에서 섬기는 것인데,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방법은 아니라는 관점에서(왕하 18:4), 솔로몬의 행위는 다소 잘못되었다는 것!!

- ②. 긍정적 -> ‘~했으나 또한!~’ : 역대하 1 장의 관점
 - > 그곳은 부정적인 관점에서 제시한 단순한 산당이 아니라 모세의 성막이 있던 산당!
 - > 곧 ‘솔로몬’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기브온 산당을 찾고 그곳에서 일천 번제를 드렸다는 것!

2) ‘솔로몬’의 일천 번제와 관련한 잘못된 오해들.

①. ‘솔로몬’은 1000 일 동안 제사를 드렸는가? : Yes or No

- > 역대하 1 장 5 절, ‘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천 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’
- > 곧 일천 번제는 번제의 횟수가 아니라 번제에 사용된 재물의 수를 의미한 것!
- > 따라서 간혹 몇몇 교회들에서 사용하는 ‘일천번제 기도회’, ‘일천번제 헌금’ 등의 단순한 모임과 헌금의 횟수를 강조하는 표현들은 분명 잘못된 표현일 것!

②. ‘솔로몬’은 1000 마리의 소를 잡았는가? Yes or No

- > 번제는 가축을 잡아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를 의미함.
- > 당시 번제의 재물로 주로 사용되었던 가축은 형편에 따라 비둘기, 양, 소.
- > 한 학자는 당시 산당에 있던 ‘브살렛’이 만든 제단의 크기는 가로,세로 2.2m 크기의 크지 않은 놋 제단이었으므로 소 1000 마리를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무리한 일이었음!
- > 따라서 몇몇 개혁주의 학자들은 1000 마리의 희생은 진짜 1000 마리를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만큼 많은 양의 희생을 솔로몬이 드렸다는 것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숫자라고도 주장함!!
- > 참고로 4 절에 대한 성경 번역들...,
N|V. KJV. NASB, CEV, ‘..., Solomon offered **a thousand burnt** offerings...,’
새번역 성경, ‘..., 솔로몬이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, **천 마리가 넘을 것이다.**’

③. 그럼 그 많은 번제물을 몇 일 동안 번제로 드렸을까?

- > 정확한 날 수는 말하지 않음.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7 일동안 드렸을 것이라 추측.
- > 그러나 몇몇 개혁주의적인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‘솔로몬’에게 나타나신 밤이 언제인가?를 기준으로 볼 때 번제는 당일 하루에 다 드렸을 것으로 추측함!

➤ 5 절을 주목!

‘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’

- > NIV, “At Gibeon the LORD appeared to Solomon during **the night** in a dream...,”
- > CEV, “God appeared to Solomon **that night** in a dream and said”
- > 새번역, ‘..., **그 날 밤에** 기브온에서...,’
- > 현대인의 성경, ‘**그 날 밤** 여호와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...,’
- > 역대하 1 장 7 절, ‘**그 날 밤에**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...,’

- 따라서 중요한 것은 ‘솔로몬’이 일천 번의 제사를 1000 일 동안 드렸다거나, 1000 마리의 희생 재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식의 해석은 분명 잘못된 해석임을 알 수 있음.
- 대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 대내외적으로 안정권에 들어서자 ‘솔로몬’은 천부장과 백부장, 모든 재판관과 각 방백들, 족장들, 온 회중을 이끌고 여호와와의 성막이 있던 기브온 뚝 제단으로 친히 나아가 최선을 다한 번제를 정성껏 드렸다는 것!!

우리도 신명기 6 장 5 절, “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”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, 항상 ‘솔로몬’과 같은 정성을 다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 봅시다!

- 3) 그러자 하나님은 그날 밤 ‘솔로몬’의 꿈에 나타나 무엇을 원하는지 구하도록 하셨습니다. (5 절)
- 주목할 것 -> ‘솔로몬’은 지금껏 (하루 종일)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는 것!
 - > 그럼 그 많은 번제를 드리는 동안 ‘솔로몬’은 무엇을 했나? -> 바로 감사와 찬양을 드림!!

- 4) 그럼 ‘솔로몬’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무엇이었나요? _____
- 9 절, ‘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’
 - 히브리어 원어로는 ‘레브 쇼메아’, ‘듣는 심장’ 이란 말로, 히브리인들은 심장을 지성의 중심으로 여기며,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깨달고 순종하는 시작점으로 보았음!

- 특별히 6,7 절을 주목!!
- ①. ‘솔로몬’은 먼저 자신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임을 분명히 알고 고백!
- ②. 그런데 자신은 출입할 줄도 모르는 ‘작은 아이’ 라고 자신을 낮추며 겸손함으로 고백!!
- >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자신이 올바르게 듣고 깨달아 백성들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것!!

- 5) 성경은 이런 ‘솔로몬’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셨다고 기록했습니다! (11 절)

- 6) 그럼 하나님께서 ‘솔로몬’의 기도를 마음에 들어 하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? (12 절)
- ‘솔로몬’이 자기 자신을 위한 부나 명예 혹은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 않고,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기 때문!
 -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기 위한 지혜 = 하나님께서 맡기신 통치자로써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한 지혜!! -> 이는 곧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한 지혜!!!
 - (ex: 예수님 =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채우실 것)

- 7) 하나님은 ‘솔로몬’이 구한 지혜뿐 아니라 그에게 부와 명예는 물론, ‘솔로몬’을 열방 중에서 가장 뛰어난 왕이 되게 하실 것이라 약속해주셨습니다. (13-14 절)
- 13 절, ‘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,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않을 것!’
 - 14 절, ‘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도 줄 것 +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!’

8)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‘솔로몬’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다시금 하나님께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열었습니다. (15 절)

- 15 절, ‘솔로몬이 깨어 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**여호와와 언약궤 앞에** 서서 **번제와 감사의 제물을** 드리고 **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**하였더라’
- 주목할 것! ->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거나 실현된 것이 없었지만 ‘솔로몬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!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고, 나아가 온 신하들과 함께 그 은혜를 같이 기뻐하며 나누었다는 것!

하나님의 약속을 진실로 믿고 사는 성도라고 한다면, 비록 그 약속이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, 찬송할 수 있어야 하고, 모든 이들과 함께 그 약속으로 인해 기뻐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!

3.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 (16-28 절)

1) 갓난아기 하나를 두 여인이 서로 자신의 아기라 주장하며 ‘솔로몬’에게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. (16-22 절)

-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당시 이 사건은 재판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다는 것!
-> 곧 어느 날 갑자기 ‘솔로몬’에게 판단해 달라며 우연히 올라온 사건이 아니라. 이미 하급 재판기관에서 이 일을 다루었으나 그 판결이 어려워 ‘솔로몬’ 왕에게까지 온 사건!
-> 따라서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의 많은 이목과 관심이 집중되었던 사건이 분명했을 것!
- 그러므로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 향후 ‘솔로몬’을 대하는 신하들이나 백성들의 자세도 분명히 큰 영향을 미치게 만드는 사건이었을 것!

2) 그럼 두 여인에게 내린 ‘솔로몬’의 판결은 무엇이었나요?

- 그 아기를 반으로 잘라서 두 사람에게 공평히 나눠주라고 지시함!
- 그러자 한 여인이 이를 말리며 포기함
- 그러자 ‘솔로몬’은 그녀가 아기의 친어머니라고 판결하며 진실을 밝혀줌.
-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름아닌 이 판결로 인해 나타난 결과가 어떠했는가?
-> 28 절, ‘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**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**’

우리는 여기서 다시금 하나님의 공의롭고 지혜로우신 판단 앞에서는 모든 불의가 하나도 남김 없이 들어날 것임을 미리 깨닫고,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먼저 회개하고 용서함을 얻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.

4. 오늘 내용을 통해 새롭게 깨닫거나 결단하게 되는 것이 있다면?